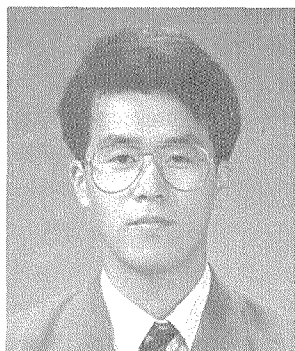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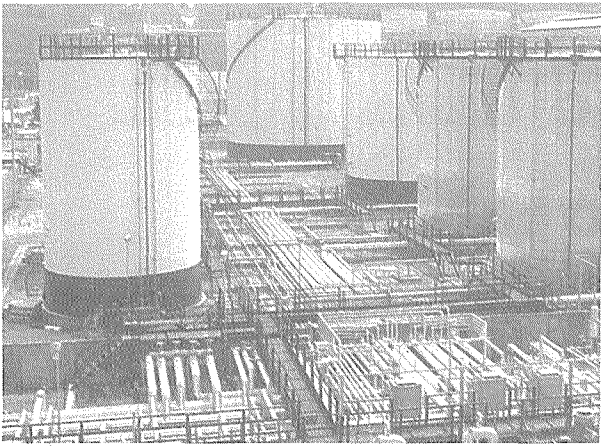
호남정유 여천공장을 돌아보고



李熙坤
〈석유협회 업무부업무과〉

회색 콘크리트의 숲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어디론가 떠날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석유협회에 입사한지 이제 겨우 두달이 되어 가지만, 이것 저것 업무를 배워가는 햇병아리 사원이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 때때로 사무실을 벗어나 푸르른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호남정유 麗川공장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책상 위에서 이론만으로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과정을 보고도 싶었고, 도대체 정유시설이란게 어떤 것인가 하는 호기심도 항상 있었다.

잠까지 설치고 아침 일찍 여수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들...

잠시 선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열차는 어느덧 남도의 땅을 힘차게 달리고 있었고, 이윽고 목적지 여천에 도착하게 되었다. 고향이 부근 光州이지만, 이곳 麗川 근방에는 거의 와보지 못했다. 하지만, 비릿한 바다냄새와 구수한 사투리가 정겨움을 물씬 풍겨왔다. 가볍게 요기를 하고 택시를 타고 호남정유를 향해갔다. 공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친 무수한 공장들, 그리고 공장 주변에서 스며나오는 그 냄새들로 인하여 이곳이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메카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공장정문에 도착하여 우선 그 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문에서 그 전체를 짐작해 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 반가히 우리 일행을 맞아 주시는 안내자를 따라서 우선 호남정유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보게 되었다. 막연히 그냥 휘발유등 석유를 만드는 그런 회사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한눈에 호남정유를 알아 볼 수 있었다.

1967년 럭키와 美國 *Caltex*의 합작으로 탄생, 6만 배럴의 규모로 시작하여 4차례에 걸친 확장으로 38

만 배럴의 국내 최대 정유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변화하는 에너지 수요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호남정유의 사업내용과 공장 설명등 이모저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홍보물을 다 본후, 직접 공장을 돌아 보았는데, 그 규모의 방대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협회에서 원유 추천업무를 하는 관계로 많은 과정중에서 특히 원유 정제 과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펴 보았다. 무수한 파이프 라인, 우뚝 솟은 탑들, 한눈에 인간의 작품이 아닐 듯 하였다. 원유도착에서 공장내의 여러 사항까지 직접 보면서 또 설명까지 곁들여 들으니, 한방울의 검은 물이 황금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하였다. 특히 방향족 생산시설의 중앙조정실의 자동화 시스템과 커다란 저유시설들, 그리고 이 거대한 공장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천명 남짓하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장치산업이 그다지 많은 인원을 필요치 않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공장 대부분이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들 중에서도 직원들의 애사심도 느낄 수 있었다.

한시간에 걸쳐 공장 견학을 마쳤다. 전 과정을 모두 빠짐없이 보고 싶었지만 서로의 바쁜 일정이 허락치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공장을 나와 푸른 바다와 오동도를 한바퀴 둘러보고 나니 주위는 어느덧 어두워지게 되었고, 부모님이 계신 光州行 버스에 몸을 실었다. 麗川을 빠져 나오면서 차창 밖을 바라 보았다. 거기에는 밤낮을 구별 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무수한 공장의 불빛이 있었고, 새하얗게 밤을 밝혀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석유화학산업의 밝은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속에서 이제 겨우 발을 내딛은 햇병아리 「석유맨」이지만 국가 기간산업에 관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그 속에서 커가는 내 모습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을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과, 도와주신 호남정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남녘 광양만의 물결은 참 푸르고 맑았었다. ♣